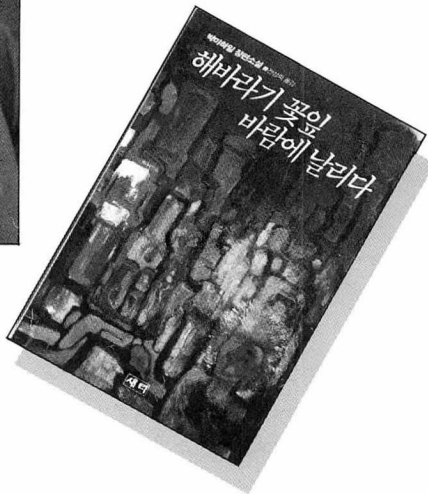




러시아 이민 5세 화가가 쓴 '유민의 역사'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
펴낸 박미하일씨



“...나는 아우간에 계시는 노인들의 시선을 눈여겨보고는 했다. 내가 그 시선 속에서 본 것은 한없는 무언의 아픔이었고, 그 아픔은 그저 통상적으로 사람 살아나가는 데에 따르게 마련인 그런 괴로움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어쩌면 내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없었던 것은, 양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아픔이 부끄러움처럼 내 가슴 깊은 곳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이 아닐까.”

러시아 이민 5세 화가이자 작가인 박미하일씨(46)의 자전적 장편소설 <천사들의 기슭>의 한 대목이다. 이 소설이 발표된 85년으로부터 꼬박 10년이 지난 이제, 그 ‘부끄러움처럼 들어앉은 무언의 아픔’은 신작 장편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에 고스란히 투영돼 나온다. 지난해 연말 서울로 건너와 마지막 50매를 완성했다는 이 소설은, 열네 살의 나이로 조선땅을 떠난 ‘월국’이라는 그림 지방생과 주변인물들의 인생역정을 통해 파란났던 러시아 유민사를 담아내고 있다.

이 두 편의 소설을 한데 묶은 두툽한 소설집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새터)가 전성희씨의 번역으로 출간됐다. 아울러 이 책의 출판기념을 겸한 ‘박미하일 초대전’이 갤러리 ‘시우터’에서 열렸다(4.11~4.22). 박씨는 지난 93년 ‘그림마당 민’에서 개인전을 가진 바 있으므로 한국에서의 두번째 전시회지만, 소설이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할아버지의 형님 되시는 분이 화가셨답니다. 모스크바에서 미술대학을 졸업해 유럽에 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박씨는 조심스러운 한국어로 ‘월국’의 모델이 자신의 큰외할아버지 ‘이 알렉산드르’임을 밝힌다. 또 <천사들...>에서 고향 마을로

나오는 아우간은 실제로 조선족 마을이었던 ‘아크 쿠르칸’으로, 1975년에 사라졌다고 한다.

“원래 외할아버지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어업회사에 다니고 계셨어요.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령에 따라 온 동네가 함께 중앙아시아로 옮겨와 새로운 마을을 이뤘답니다. 그때 어머니의 나이 13세였지요. 저는 그곳에서 태어나 열한 살까지 자랐는데, 지난 80년 찾아가보았더니 마을이 사라졌더군요. 모두 도시로 떠난 거죠. 동구박 포플러 나무 두 그루만 그대로였는데, 그 가운데 연결돼 있던 나무 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 놀며 때로 버스를 기다리곤 했던 그 의자가 남아 있었습시다. 거기 한나절 앉아 있다 온 기억이 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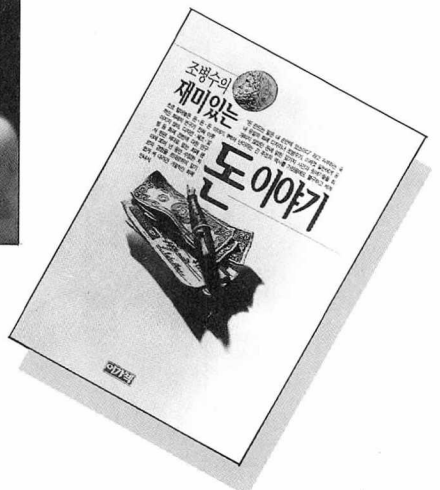
그 ‘아크 쿠르칸’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며, 글을 쓰겠다는 생각 따위 없이 부모와 조부모의 이야기를 곱씹어 들었던 것이 <해바라기...>를 쓰는 원동력이 됐다고 한다.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역사를 공부하긴 했지만, 정작 소설에 담긴 내용은 거개가 예전에 들었던 ‘생생한 이야기’들이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저 예술을 하는 평범한 막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줄게 웃는 박씨의 옆얼굴에는, 그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그림들이 그렇듯 ‘중앙아시아의 유랑인’다운 질박한 우수가 담겨 있다.

—한 강 기자



화폐 제조와 역사의 풍성한 뒷이야기

《재미있는 돈이야기》펴낸 조병수씨



“돈 만드는 일은 내 손안에 있소이다”하고 자부하는 국내 유일의 화폐 디자이너 조병수씨(57, 한국은행 발권부 부부장)가 세계 각국의 돈에 얽힌 사건과 뒷이야기를 한권의 책으로 묶어냈다.

《재미있는 돈이야기》(이가책)가 그것. 한국조폐공사에 입사해 화폐디자이너와 인연을 맺은 이후 현재까지 화폐 연구에만 30년을 매달리고 있는 조씨의 노력 앞에 9백여년 화폐의 역사와, 이제껏 공개되지 않은 화폐 제조의 뒷이야기들이 일제히 도열, 풍성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화폐분야에 연구가는 물론 연구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실로 볼 때 회소가치를 지닌 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씨는 “시류를 예민하게 타는 대표적인 산물”이 화폐라면서 그 제조과정의 비화만 알아도 그 시대가 어떠한 분위기였는가를 알 수 있다며 말문을 연다.

“화폐제조 소동은 대부분 권력자의 권위를 과장되게 앞세우는 측근들에 의해서 일어났습시다.”

자유당시절, 5백환권 중앙에는 이대통령의 초상이 들어 있었는데 이 지폐가 유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쪽으로 잘라지거나 중앙이 마모돼 초상이 보기 흉한 모습이 돼버렸다. 대통령을 싫어하던 사람들은 일부러 이 지폐를 반으로 잘랐다가 다시 붙여 쓰기도 했다. 그러자 항간에서는 대통령을 욕되게 하기 위해 일부러 초상을 중앙에 넣었다는 유언비어까지 나돌아서 도안을 새로이 제작해야만 했다는 비화가 전해진다.

《재미있는 돈이야기》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도 도안선정에 참여해 한차례 해프닝 일으켰다고 기록됐다. 한때 세종대왕·이순신·이이·이항·정약용 등의 초상을 도안용으로 제작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이 ‘퇴계가

다산보다 비중이 높으니 1천원권은 퇴계상으로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람에 다산의 초상은 햇빛도 못본 채 예비 인물상으로 남게 됐다는 것.

조씨는 전문가답게 “외부요인이 아니라도 화폐 도안은 10년이나 15년마다 바뀌고 있어 각국의 화폐가 바뀌는 흐름을 파악하고서 디자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대적인 화폐일수록 초상화가 아닌 동식물이나 풍경 등 다소 화려한 문양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실용성을 고려해서인지 화폐 크기도 점차 작아진다고 진단한다.

그는 현재 한국은행 발권부에서 화폐디자이너 기획을 맡고 있다. 화폐의 크기, 인쇄, 레이아웃, 제작비, 권중체계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절충하는 작업인데 무엇보다도 “화폐 한장에는 인쇄기술의 모든 것이 총동원된다”고 한다. 화폐에 관한 한 다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장인’의 경지에 들어선 조씨가 돈을 쓰는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단 한마디, “돈을 깨끗하게 사용해 제작비용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그의 재산목록 1호는 세계 100여개국의 은행권과 주화를 찍은 수백장의 슬라이드인데, 곧 간략한 설명을 덧붙여서 도록 형태의 《세계은행권》(가제)을 펴낼 예정이다. 《재미있는 돈이야기》와 짝패를 이뤄 화폐 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배은희 기자



프로 건축가가 들려주는 '하이퍼' 인생

《나의 테마는 사람, 나의 프로젝트는 세계》 펴낸 김진해씨



누구나 똑같이 한 인생을 산다지만 그 인생의 질까지 다 같은 건 아니다. 죽음의 순간에 질량을 재는 통과식이라도 있다면 다 제각각의 무게로 흡족하게 혹은 아쉽게 이승을 작별하게 될 것이다.

건축가 김진해(42, 서울포럼 대표)씨의 생을 뜯어본다. '중간평가' 해본다면, 단언하건대 현재로서는 '슈퍼' 무게로 판정받을 만하다. 외양으로나 내용의 질로나. 그녀는 얼마전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차세대 지도자 100인'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뽑혀 그 자신과 주변사람들에게 긍지와 영광을 두루 안겨주는 일을 했다. 그것이 내용의 '수치'라면, 건장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침없는 말투와 유머는 외양의 수치를 성큼 최고에 올려놓는다. 그녀는 '파워풀'하다.

《나의 테마는 사람, 나의 프로젝트는 세계》(김영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 어떤 여자?" 하는 일반의 궁금증에 만족할 만한 답을 들려주는 '하이퍼' 수필집이다. 가령, 어떻게 해서 내로라하는 유수의 국내 건축가들을 제치고 그녀가 당당히 '세계의 건축가' 대열에 꼽히게 되었는지는, MIT공대 시절 친구들로부터 '김진 에너지'로 불리며 "얼굴이 빛나, 일에 흠뻑 취했어" 감탄을 들으며 '골방' 생활을 하던 때에서 단초를 읽을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많은 사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한마디로 '당찬' 그도 여자가 일을 일로서 하려면 넘어야 할 몇가지의 고개를 힘겹게 넘어왔고, 아직도 그 고개에서 도전받고 있음이 이 책엔 또 고백돼 있다. 그러면서 일정 정지에 올라선 프로의 '한 수'를 들려준다. 일하다보면 어쩔수없이 부딪치게 되는 '덜 떨어진' SOB(son of bitch)들을 다루는 걸지거나 한술 더 뜨는 조크 기술,

때론 외교적 언어로 우회적인 모욕을 주는 방법도 처신의 지혜다. 또 일에 관한 한 "프로는 자기가 한 일에 감탄하지 않는다" "프로란 일을 '놀이'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며 '14시간'의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야! 오늘도 신나게 놀았다"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드라마틱한 삶도 화려한 직업도 아닌 내게 친구는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써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가 더 필요한 이들은 남자라고 생각해요."

그가 배움을 얻는 곳은 의외의 곳이다. "엄마는 눈이 매력적이에요. '어떻게 매력적인데?' 엄마가 생각하고 일하고 할 때는 눈이 가늘어지는데 좀 슬픈 것 같이 보이거든, 근데 엄마가 화가 나면 눈에서 불이 나와, 무지무지 무서워, 반짝반짝 하니까. 엄마는 웃으면 말이지, 눈에서 별이 떠!" 엄마눈에 별이 뜬다!!!는 딸의 말에 이 '덩치 큰' 여자도 그만 눈물이 글썽해진다. 무릎 위의 딸을 꼭 껴안으며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어려운 일임을, 어린 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대해,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건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음을 고백한다.

'하이퍼(매우 활동적인) 레이디' '늑지 않는 영원한 X세대'이고 싶은 그는 일반인들이 너무(!) 모르는 도시와 건축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책을 펴낼 계획이다.

—정혜욱 기자



다큐멘터리 감독의 영화만들기 세상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펴낸 변영주씨



국내에서 몇 안되는 기록영화 연출자로 활동하고 있는 변영주씨(30, 기록영화제작소 <보임> 책임연출자)가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화평사)을 통해 자신의 기록영화 제작기를 덩뎅히 들려준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광적으로 보던 비디오와 고개를 숙이고 몰래몰래 잠입을 시도하던 동시상영관, 그 안에 있던 침침한 의자들을 밀그림으로 삼아 '영화관'에 뛰어들었다는 변씨. '쇼맨십'이 강해서 이대 법학과를 다닐 때는 운동권 서클에서 연극을 하는 등 울퉁불퉁한 성장기를 거쳤는데 그 모든 것이 '영화보기'에서 '영화만들기'로 옮겨오는 과정이었다고 전한다. "조용한 암자를 찾아 고시공부를 하라"는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리면서까지 과고든 기록영화이기에 "이제는 '사료잡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신념과 철학으로 끌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대중들의 호응도가 낮은 다큐멘터리를 고집하는 이유는 한때 나를 사로잡았던 영화들이 '영화는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반영의 현실'이라는 장 쾨르의 말을 입증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큐멘터리는 알고 있는 세계를 리바이벌해서 확인하는 영화와 확연히 다릅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닌 알아가는 작업이기 때문이죠. 위안부들과 매춘여성들을 다큐멘터리에 등장시킨 것도 사실은 그들의 삶 속에 은폐된 진실을 찾아내어 보여주고자 함이었지요."

기록영화를 찍을 때 변씨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인물들과의 '관계맺기'이다. 다큐멘터리의 최대 미덕인 '대상의 깊이'를 보여주려면 연출자는 대상에 대한 애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한다. 그러나 열심히 찍어도 기록영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않아 항상 제작비문제로 힘들다고 말한다.

이럴 때마다 변씨는 작고한 오가와 신스케 감독의 "피를 팔아 필름을 샀다"는 말을 떠올린다고.

변씨는 현재 '아시아-계국주의-성역압 이데올로기-여성'이라는 다소 긴 주제를 가지고 연작형태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국제매춘'을 다룬 1탄에 이어 종군위안부들의 94년도 생활상을 담은 <낮은 목소리-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두번째 이야기>를 지난 4월 29일부터 피카소극장, 동숭아트센터 별관, 뫼미에르에서 2주 동안 상영하고 있다. 작품 편수로 따지자면 결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가 <낮은 목소리...>에 강한 애정을 느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중국 호북성의 무한(武漢)이라는 곳에서 여덟분의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강제로 중국으로 끌려와 매춘을 강요받은 종군 위안부였는데도 순결 이데올로기 때문에 스스로 죄의식을 느끼셨지요. 낮은 땅에서 반평생을 살면서 흘러간 가요로 마음을 달래던 그 할머니들이 저를 보더니 고향에서 찾아왔냐며, 경상도를, 충청도를 아냐며 눈물부터 흘리셨어요."

그들의 삶에서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역사의 흔적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변씨는 숫자치는 분노를 느꼈고, 카메라 뷰파인더가 얼룩지는 것도 모르고 계속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배은희 기자